



사설.

저항과 전환으로서의 농생태학: 먹거리주권과 어머니 지구

풀뿌리 사회 운동에서 FAO, 정부, 대학, 기업에 이르기까지 농생태학이 갑작스럽게 유행이 된 것 같다. 그렇지만 이들 모두가 농생태학에 대해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다. 주류 기관들과 기업들은 수년간 농생태학을 주변화시키고 비웃다가 이제야 가로채려고 한다. 이들은 단작 모델과 자본 및 기업의 중심의 권력구조를 유지하면서, 자기들에게 유용한 것-기술적인 부분-을 선점하고, 산업적 농업을 미세조정하는 데 농생태학을 사용하려고 한다. 반면에 우리 사회 운동 진영에서는 토지 집중, 독점과 같은 기존의 권력 구조에 도전하고, 농촌과 어머니 지구에 가해지는 공격에 저항하고자 데 농생태학을 활용하고자 한다. 우리들에게 있어 농생태학은 공동체와 영토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생태학적 전환을 일구는 도구이기도 하다. 그들에게 농생태학이 단순히 기술적인 것이라면, 우리의 농생태학은 정치적인 것이다.

농생태학은 논쟁의 장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 민중운동은 농생태학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합의를 이뤄야 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2015년 2월 말리의닐레니에서 국제 농생태학 포럼을 개최했으며, 로마, 아메리카 대륙, 아시아, 아프리카, 중국, 유럽에서 개최된 다양한 FAO 주최 농생태학 포럼에 참가하여 열띤 논쟁을 벌였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영토에서도 적극적으로 농생태학을 수립하고 있다.

- LVC(비아캄페시나) 피터로셋, FoEI(지구의 벗) 마르틴드라고

지금 온라인으로 구독하세요!

www.nyeleni.org

폴뿌리로부터 먹거리주권운동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기여가 보탬이 됩니다. 닐레니 뉴스레터를 지원해주세요.

은행: BANCA POPOLARE ETICA SCPA, BRANCH IN SPAIN

계좌명: AsociaciónLurbide – El Camino de la Tierra

IBAN: ES2315500001220000230821

BIC/SWIFT code: ETICES21XXX

우리들은...

최근 몇 년간 다양한 조직들과 운동이 전 세계의 먹거리주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확산시키고자 방대한 투쟁, 활동, 작업에 참여해왔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2007년 국제 닐레니 포럼에 참석했고, 2007년 닐레니 선언문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아 보다 폭넓은 먹거리주권 운동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닐레니 뉴스레터는 이러한 국제 운동의 목소리가 되어주고자 합니다.

참여 조직: Development Fund, FIAN, Focus on the Global South, Food First,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GRAIN, Grassroots International, IPC for food sovereignty, La Via Campesina, Marcha Mundial de las Mujeres, Oxfam Solidarity, Real World Radio, The World Forum Of Fish Harvesters & Fish Workers, TNI, VSF-JusticiaAlimentaria Global, WhyHunger.

이제는 먹거리 주권의 시대입니다!

스포트라이트 1

다음은 수정 발췌함

농생태학 국제 포럼 선언문 – 닐레니, 말리, 2015년 2월 27일

우리는 소농, 원주민, 공동체, 수렵 및 채집민, 가족농, 농촌 노동자, 목축민, 유목민, 어민, 도시민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소규모 먹거리 생산자들과 소비자 조직과 국제 운동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방대하게 구성된 우리 조직들은 인류가 소비하는 먹거리의 7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적으로 주요한 농업 투자자이며, 전 세계의 일자리와 생계를 제공합니다.

2007년 저희 중 다수가 여기 닐레니에 모여 먹거리 주권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5년 농생태학 포럼에 모였고, 다양한 먹거리 생산자, 소비자, 도시 공동체, 여성, 청년, 그리고 여타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 농생태학을 보다 풍성하게 발전시키고자 했습니다. 먹거리주권 국제계획위원회(IPC)가 국제 및 지역 단위에서 조직되면서 오늘날 우리의 운동은 새롭고 역사적인 단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과거를 키워나가다

우리의 고대 생산 체계는 수천 년에 걸쳐 발전되어 왔으며, 지난 30-40년간은 이를 농생태학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농생태학은 성공적인 농법과 생산을 아우릅니다... 우리는 정교한 이론적, 기술적, 정치적 산물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의 농생태학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며, 이게 바탕을 둔 소규모 먹거리 생산은 로컬의 지식을 만들어내고, 사회 정의를 촉진시키며, 정체성과 문화를 키우고, 농촌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습니다.

농생태학은 우리가 생명의 원에 함께 서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랜드그래빙(land grabbing, 토지 수탈)이나 우리의 운동을 범죄시하는 세력에 맞서서 힘을 모아 함께 싸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중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산업적 먹거리 체계는 기후, 먹거리, 환경, 공공 보건 등의 다중적인 위기를 초래합니다. 자유 무역과 기업 투자 협정, 투자자국가소송제와, 탄소 시장이나 먹거리와 토지의 금융화와 같은 거짓된 해결책은 이러한 위기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우리는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경제 체계에 저항하는 한 형태로서 농생태학을 바라봅니다.

교차로 위의 농생태학

민중들의 압력으로 다양한 다자간 기구, 정부, 대학, 연구 기관, 일부 NGO, 기업 등이 마침내 “농생태학”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편협한 의미의 기술로서 농생태학을 다시 정의하려고 합니다. 또한 기존의 권력 구조는 그대로 두고, 산업적 먹거리 생산의 지속가능성 위기를 해결해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기술만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환경 담론에 사탕발림을 하면서, 농생태학의 이름으로 산업적 먹거리 생산을 미세 조정하려는 시도는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기후 스마트 농업”, “지속가능한-”, “생태적인 집약화”, “유기농” 먹거리의 산업적 단작 생산과 같은 것들이죠.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농생태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농생태학을 서서히 잠식하려 드는 힘의 민낯을 밝히고 이를 저지하고자 싸울 것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은....산업적인 모델에 순응한다면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소농, 어민들, 목축민들, 원주민, 도시 농부들 등의 손으로, 진정한 농생태학적 생산에 기반하여 새로운 농촌-도시 간 연계를 만들고 우리의 로컬푸드 체계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농생태학은 산업적인 모델에 대한 핵심적 대안이며,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인류와 어머니 지구에게 보다 유익하도록 바꿔나가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농생태학의기틀과 원칙

농생태학적인 생산은 토양에 생명체를 일구는 것, 영양분을 재활용하는 것, 모든 스케일에서 생물다양성과 에너지 보전을 역동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같은 생태학적 원칙에 근거해 있습니다. 농생태학은 산업으로부터 조달해야만 하는 외부 구입 투입재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줍니다. 농생태학에서는 독성물질, 인공 호르몬, GMO나 여타 위험한 신기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토는 농생태학을 떠받치는 핵심적인 기틀입니다. 사람들과 공동체는 토지에 대한 자신들의 영적이고 실질적인 관계를 유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이들의 법, 전통, 관습, 토지 소유 체계, 제도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민중에 의한 자치와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것을 동반합니다.

공동의 자산에 대한 집단적인 권리와 접근성은 농생태학을 떠받치는 핵심 기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중들의 다양한 지식과 삶의 방식은 농생태학에 있어 근본적입니다. 농생태학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혁신, 연구, 작물 및 가축 선별 및 사육을 통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세계관의 핵심은 자연, 우주, 인간 사이의 균형입니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생명을 상품화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집단적인 조직화와 행동은 농생태학을 확산시키고, 로컬 푸드 체계를 만들며, 우리 먹거리 체계를 통제하려 드는 기업에 도전할 수 있게 합니다. 민중들 간의 연대, 농촌과 도시민들의 연대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농생태학은 글로벌 시장의 통제를 밀어내고, 공동체에 의한 자치 구조를 만들어 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시장을 뜯어고쳐 연대의 경제라는 원칙과 책임 있는 생산 및 소비의 윤리에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농생태학은 정치적입니다. 농생태학을 위해서 우리는 사회의 권력 구조에 도전하고 이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종자, 생물다양성, 토지, 영토, 물, 지식, 문화, 공동의 자산을 가꿀 수 있어야 하며, 세계를 먹여 살리는 이들의 손에 이런 자원들이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성들의 역할과 이들의 지식, 가치, 전망, 지도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의 노동이 인정되지 않거나, 가치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농생태학이 완전한 잠재력을 갖기 위해서는 권력, 임무, 의사결정, 보수에 있어서 동등한 분배가 이뤄져야 합니다.

농생태학은 젊은이들이 지금 다양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환경적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급진적인 공간을 제공해줍니다. 농생태학은 영역적이고 사회적인 역동성을 만들어 농촌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여성들의 지도력을 높이 사야 합니다.

전문은 다음의 주소를 참고하세요.

<http://www.foodsovereignty.org/agroecologyyeleni2015/>

스포트라이트 2

교차로 위의 농생태학 - 제도화와 사회 운동 사이에서

농생태학 바람이 분다. 국제 농업 관련 기구들이 한 때 무시하고 천대하고 배제했던 농생태학이 이제는 녹색혁명이 초래한 심각한 위기들에 맞설 수 있는 핵심 대안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며, 한편으로는 심각한 딜레마를 낳기도 한다. 농생태학은 포섭되거나 본래의 메시지를 빼앗기게 될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정치적인 기회를 활용해 현재 주도권을 가진 농업착취적인 모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로서 발전할 것인가. 국제기구들은 단일하지 않으며 내부적인 논쟁이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두 개의 진영이 경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 정부 기구, 국제기구, 민간 부문으로 이뤄진 진영이 한 축이고, 농생태학을 현재의 농업 및 먹거리 체계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로 보고 이를 수호하는 다양한 사회 운동이 또 다른 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녹색 자본주의가 소농의 농업, 영토, 농생태적인 실천을 국제적 자본 축적의 일환으로 포섭시키고자 농생태학을 “발견” 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녹색 자본주의는 종자와 농업의 생물다양성을 상업화시키고, 소농과 원주민 공동체의 농생태적인 지식을 전유하며, 먹거리·화장품·의약품 시장에 내놓을 농산물을 발굴하고, 탄소배출권이나<산림전용·황폐화방지(REDD+)>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보호 및 조약으로부터 이윤을 늘리며, 대형 슈퍼마켓에서 “농생태학적”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산업적 유기농산물 시장의 확장시켜 이윤을 얻고자 한다. 특히 농산업계는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생산 관행을

미세조정하고, 생산 조건 악화·생산비 증가·점진적 생산력 감퇴의 경향에서 부분적으로 벗어날 절호의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고전적인 발전 전략은 농촌에 사는 민중들의 지식을 전유하게 될 것이다. 이는 정부, 기회주의적인 NGO, 초국적 기업, 각종 재단과 국제조직의 사업을 중심으로 농생태학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게 될 것이며, 이들에 대한 의존성을 낮게 된다. 따라서 농생태학을 통해 세계 농업 구조를 변화시킬 문이 마침내 열렸다고 순진하게 믿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 운동에서는 제도화로 인해서 공공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관료화나 불필요한 선동이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회 운동에서 중대한 교차로에 서있다. 이러한 논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본은 만성적인 과잉 축적의 위기에서 탈피하고자 달려들 것이며, 생산 조건을 일시적으로 재구조화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은 우리의 힘을 다시 결집시켜 새로운 전유의 시도에 저항하고, 투쟁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으며, 저항의 형태를 쇄신시키고, 대안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마지막으로 자본은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자본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할 때, 즉 모든 공간과 인간의 활동을 축적의 회로로 포섭시키려고 할 때, 민중은 집결해 자신들의 지식과 유산을 다시 전유하고, 자기 문화의 가치를 재평가하며, 스스로의 영토에서 농생태학을 효율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사회적 과정에 보다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민중의 투쟁은 보다 강력해지는 것이다.

전문은 다음의 주소를 참고하세요. (스페인어)

<http://revistas.ufpr.br/guaju/article/view/48521/29189>

글상자 1.

“난관에 봉착하다”: 무역·투자 체제는 농생태학의 발전과 토지에 대한 접근을 막는다.

소규모 먹거리 생산자들은 농생태학과 관련된 지식, 농법, 운동을 서로 나누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농생태학 실천에 적절한 공공 투자가 제공될 경우, 식량주권을 달성에 큰 도약을 수 있다는

사례를 현장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체결한 현재의 무역 투자 협정은 농생태학의 진전을 막아서고 있다.

이러한 협정들은 농산업을 끌어들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업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이는 보통 양자간투자협정(BITs), 자유무역협정(FTAs), 조건부용자, 원조협정과 같은 투자 및 무역 자유화를 통한 시장 개방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협정의 규정들은 국가의 주권을 대체하며, 각국이 자신들의 경제나 사회, 환경적 이해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을 저해시킨다. 동시에, 이들은 국가와 국민들의 복지를 희생시켜 농기업의 이윤을 보호하고, 이들을 포괄적으로 옹호해준다.

핵심적인 수단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이는 비밀중재재판소를 통해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자신들의 수익 추구 활동을 저해할 수도 있는 경제, 사회, 환경 정책 실행에 대해서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농기업 투자 촉진 전략. 면세 특구, 일방적 관세감축, (전기나 수자원 같은) 서비스 사용에 대한 보조금, 노동자 고용 및 훈련에 대한 보조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발 원조나 식량 원조를 제공한 이들 역시 농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옹호한다. 3) 해외 농기업에게 로컬 사업체와 동등하거나,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것. 4) 자국 노동력 고용이나 기술 이전 요건과 같은 이행의무를 금지하는 것.

그러나 먹거리 주권운동과 경제적 정의 운동은 이에 맞서 싸우고 있다.

전문은 다음의 주소를 참고하세요.

<http://www.foei.org/wp-content/uploads/2016/10/Camisa-Once-Varas-INGLES-Q.pdf>

실천하는농생태학 1

농생태학의 확산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 구축하기: 샤푸농생태학 학교

비아캠페시나(LVC)의 회원조직인 짐바브웨 소규모유기농민포럼(ZIMSOFF)은 샤푸에서농생태학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농생태학 학교에서는 짐바브웨와 주변 국가의 농민들이 수평적인 학습 과정을 바탕으로 소농의 농생태학적 농사 경험들을 공유하는 장이다.

이 학교는 전 세계 50여개에 이르는 비아캄페시나농생태학 학교 네트워크의 한 부분이다. 또한 이는 농약과 비료에 대한 의존성을 타파하고, 기후 변화 문제에 있어 생존 전략을 집단적으로 발전시키는 주춧돌이다. 샤쉬에는 농민들이 다양한 농생태학적 농법을 적용해 먹거리 주권을 확보하고, 기후 변화 피해를 줄이며, 시장에서 구입한 농업 투입물에 대한 의존을 줄여 온전한 농가 수입을 지키고자 한다. 이러한 농법에는 거름의 사용, 멀칭, 최소 경운, 다모작, 전통적인 종자의 교환과 사용 등이 있다. 이러한 실천은 ZIMSOFF의 농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소농들이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농민은 작물을 재배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가축을 키우고 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농생태학적 체계에서 이러한 가축들은 인간들과 먹거리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에 있지 않으며, 인간이 먹지 않는 잡초나 곤충 등을 먹는다.

ZIMSOFF의 소농 가족들은 로컬푸드 가공, 저장, 보존과 관련한 실험을 하고 있다. 이는 수확 이후 손실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지역 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이는 청년들 일거리 창출에 있어서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샤쉬의 농민들은 해바라기나 땅콩과 같은 작물을 식용유나 땅콩버터로 가공한다. 또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활기찬 로컬시장을 만들고 있으며, 소비자와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다.

2016년 4월, 샤쉬농생태학 학교는 모잠비크의 마니카 지역 농민 20명을 초청했다. 이들은 소농의 씨앗과, 소농들의 생산 및 교환을 불법화하는 정책에 맞서 싸우는 투쟁에 대해 배우고 정보를 교환했다. 나쁜 정책은 상업적으로 등록된 종자의 판매를 촉진하며, 생식질의 사유화를 강화시키는 정책 틀을 만들고, 소농의 씨앗을 공격한다. 이러한 정책과 싸우는 일은 농생태학을 보완하며, 농생태학적 교류는 소농의 종자주권을 세우고 저항을 조직화하는 데 핵심적이다.

샤쉬에서의 경험은 소농들이 농생태학과 종자, 가축을 바탕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낮은 비용에 가족과 시장을 위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농생태학은 소농들이 직접 나서서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 방향을 구상할 환경을 조성해주며, 존중과 상호적 학습에 토대를 둔 더 나은 사회적인 관계를 만들어준다.

실천하는농생태학 2

녹색 혁명을 뒤엎기: 우루과이 토종 및 크리올(Criole) 씨앗 네트워크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소비하기 위해 먹거리를 생산하는 활동은 원주민, 소농, 농민들의 “자연스러운” 씨앗 활용에 근거하고 있었다. 우리가 가진 지식, 능력, 기술을 사용하여 야생 씨앗을 길들이고, 적응시키고, 증진시키고, 무엇보다도 씨앗을 재생산해서 먹거리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특히 세 가지의 작물, 즉 아메리카 대륙의 옥수수, 아프리카의 밀, 아시아의 쌀은 세 문명에 자양분과 생명을 제공해 주었다.

이주를 통해서 지역 고유의 종자들은 상이한 생태계, 기후 조건, 환경을 가진 다른 영토로 이동하게 되었다. 새롭게 도입된 씨앗을 현지 조건에 적응시키고 재생산시킬 능력을 가진 주체는 각 영토의 소농과 농민들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크리올(criole) 씨앗”라는 용어가 탄생했다. 크리올 씨앗은 새로운 땅에서 이러한 적응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토종 씨앗”과 구분된다.

인간들은 생산에 적합한 6000여종의 작물을 길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날 우리는 이 중 200여종만을 재배하고 있으며, 그 중 12여종이 식단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20세기 초반(1910년대)에 중심부 국가들은 산업적이고 유전자를 조작한 씨앗, 이와 관련된 농약 등의 기술 꾸러미를 바탕으로 녹색혁명 모델을 구축하고 국제적으로 확산시켰다. 기아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으며,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비용은 막대했다. 하지만 농기업이 주도하고 거대 초국적 기업이 지원하는 대규모 산업적 농업의 진전을 늦추거나 이를 전복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우루과이 토종 및 크리올(Criole)씨앗 네트워크에서는 농가와 소농이 토종 및크리올 유전물질들을 사용하고 보존하여 대대로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우리는 지금 먹거리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이것이 권리라는 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이들만의 임무는 아닐 것이다. 사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이건, 우리 모두는 먹거리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싸움에 몸담아야 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수백만에 이르는 전 세계 소농, 농민, 공동체가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 씨앗을 가지고 있는 농민, 씨앗이 커나가는 땅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싸울 수 있는 농민, 씨앗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물을 위해 싸울 수 있는 농민이 있다면, 생명의 지속성은 보장될 것이다.

실천하는농생태학 3

인도에서의 농업 위기에 대한 진짜 해결책 - 인도의 무예산자연농업

무예산자연농업(Zero Budget NATural Farming, ZBNF)는 인도, 특히 카르나타가주에 기반하고 있는 농생태학적 실천이자, 풀뿌리 소농 운동의 연합체로, 100,000명에 이르는 소농들이 참여하고 있다. 무예산자연농법은 소농 회원들이 운동의 중심이 되어 자발적인 의지를 다지기 때문에, 어떠한 자금도 받지 않고도 실천할 수 있었다. 무예산자연농법에서 예산(budget)이라는 단어는 신용대출이나 지출을 의미를 하며, 따라서 무예산(zero budget)이라고 할 때는 신용대출을 사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자연농업(natural farming)'은 자연과 함께 함을 의미한다. 본 운동은 무예산자연농업의 농법 꾸러미(toolkit)를 집대성한 농업 과학자 수바쉬팔레칼(SubhashPalekar)과 비아캄페시나(La Via Campesina)의 회원조직인 카르나타카주농민연합(KRRS)의 협력으로 이뤄지게 되었다.

인도의 농업 위기는 값비싼 농자재, 낮은 시장가격,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농민들을 빚어 허덕이게 했다. 지난 20년 동안 25만 이상의 농민이 자살했다. 다양한 연구들에 의하면 이러한 농민은 자살은 부채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예산'농업은 대출에 대한 의존을 종결시키고, 생산 비용을 급진적으로 감소시키고자 한다. 기존의 화학적 단작에 등을 돌리고 무예산자연농법을 실천하는 농민들은 사실상 거의 현금을 들이지 않고도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무예산자연농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1)지뱌루타(Jivamruta)는 소의 똥오줌, 콩가루, 생선탕, 흙 한줌으로 만든 미생물 배양체이다. 2)비잠루타(Bijamruta)는 이와 유사하게 종자를 처리한 것이다. 3)멀칭과 피복작물의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4)수분을 조절한다. 무예산자연농법은 관습적 농법에서 사용되는 물의 절반도 필요하지 않으며, 건조한 지역에 적합하다. 이밖에도 간작, 토착 지렁이와 소, 고랑, 생태적인 해충 관리와 같은 원칙들이 있다.

지역 수준에서 이 운동은 자발적으로 조직된 역동성을 가지며, 비공식적 방식으로 운영된다. 활동에서 두각을 보이는 무예산자연농법 농민들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들은 조직적인 활동을 하거나, 자발적으로 농민에게서 농민을 연결하는 교류 활동, 여타 교육적 활동을 실행한다. 카르나타카 주 차원에서 조직된 활동이 있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팔레칼이

진행하는 대규모의 집중 연수 캠프로, 참가자는 300에서 5000명에 이르며, 총 5일 동안 진행한다.

“무예산자연농법에서 우리가 지출하는 비용은 매우 낮습니다. 생산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작아도 여전히 이윤이 나거든요. 여기다가 간작을 더하니 하나의 작물 외에도 다양한 작물로부터 수입을 얻어요. 이제 생산량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 아니에요.”

-무예산자연농법 농민 벨가움

실천하는농생태학 4

유럽에서 공동체지원농업(CSA)운동 정립하기: 어전시(Urgenci) 유럽

우리들은 유럽에서 공동체기반농업운동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거리 주권과 연대의 경제라는 두 기둥을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기반농업운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공동의 내러티브를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유럽 전역의 어전시(Urgenci)회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선언문을 만들고자 1년간의 과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실시한 CSA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유럽에는 100만에 이르는 CSA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다 아우르는 선언문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모든 국가와 회원들이 이 과정에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시작부터 참여적이고 집단적인 방식으로 작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로 뭉쳐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사기업들이 CSA개념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구별지어주는 “신분증”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꾸러미 정기배송(Box schemes), 푸드 어셈블리(Food Assemblies, 생산자 직거래 플랫폼)와 같이 기존의 시장과는 차별화되는 시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CSA만이 유일하게 소비자가 생산자와 위험과 수익을 함께 분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공동체지원농업 선언문을 정립하면서 우리는 유럽의 CSA 플랫폼과 로컬 및 국내에서의 네트워크를 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지에 관한 논리를 보강했습니다. 이 과정은 지속가능한 운동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본 선언문은 9월 17일 체코공화국 오스트라바에서 열린 제3회 유럽 CSA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우리 운동의 입장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밀어내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려 들 것 입니다.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 선언문을 보고 환호했습니다. 선언문은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어전시 회원이 외에도 CSA를 실천하고 있는 이들이 함께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른 감은 있지만 본 선언문은 우리 운동을 확산시키는 강력한 도구로서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과정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소에서 선언문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http://urgenci.net/the-european-csa-declaration-adopted-inostrava/>

글상자 2.

먹거리주권이 동유럽에 뿌리를 내리다.

제2회 유럽 닐레니 먹거리주권 포럼은 10월 26일에서 30일까지 루마니아의 클르지나포카(Cluj-Napoca)에서 개최되었으며, 유럽과 중앙아시아 40개국에서 온 500명의 참가자가 함께했다.

5일간 이어진 토론에서는 유럽의 먹거리 체계를 되찾고 이를 다시 지역으로 되돌리려는 다양한 행동과 전략을 계획했다. 농민, 먹거리 및 농업 노동자, 노동조합, 연구자, 활동가, 어민, 목축민, 원주민, 소비자, NGO, 인권운동가 등 다양한 이들이 함께 했다.

본 포럼의 큰 결실로,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조직/운동이 함께 모여 집단적인 지역의 전략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이곳에서의 먹거리주권 운동에 박차를 가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모임에서는 농생태학에 관한 말리 선언문을 수용하여, 유럽에서 농생태학의 확산을 통해 먹거리주권을 달성하고자 했다.

포럼의 준비는 2015년 12월에 시작되었는데, 먼저 다양한 유럽 조직들이 파리에 모여서 새로운 닐레니 유럽조정위원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3개월 뒤인 2016년 3월에 2차 포럼 참석에 관한 초대장을 보냈다. 풀타임 코디네이터 1인, 다양한 실무 그룹은 기금 조달과 재정적인 문제를 담당했으며 신규 웹페이지와 뉴스레터를 만들고, 의제 및 포럼 내용과 관련한 참가자들의 자문을 받아 회의를 준비했다. 또한 통역 기술팀 COATI는 60명의 자원봉사 통역사들의 도움을 받아 9개 주요 언어로 포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했다.

아직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나라들에서 연락망을 확보하고 대표단을 세우는 일은 포럼 준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이번 작업을 통해 국가마다 핵심 지점을 수록한 리스트를 만들게 되었다.

본 모임은 유럽, 특히 동유럽에서 강력한 먹거리주권 운동을 세우는 데 있어서 디딤돌과 같다. 또한 아직 이러한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는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 역동적인 먹거리주권 운동을 만드는 과제가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 먹거리주권 운동을 정립하고자 첫 발을 내딛고 있으며, 공동의 행동 계획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글상자 3.

농생태학을 위한 공공정책 수립하기

먹거리주권을 위한 국제계획위원회(IPC, International Planning Committee for Food Sovereignty)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농생태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공정책이 제시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토론에 참여해왔다. 이 과정의 토대로서 FAO는 2014년 9월 식량 보장과 영양을 위한 농생태학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조직했으며, 지역 심포지엄을 통해 토론과 대화를 보다 분권화시키기로 합의했다.

2015년 FAO, IPC, 다양한 정부와 연구자들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6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11월), 아시아 및 태평양(11월)에서 심포지엄을 조직했다. 2016년에는 이러한

심포지엄의 후속 작업으로 FAO 지역 컨퍼런스의 농생태학에 관한 회의 결과를 분석하고, 농생태학을 지역에서 확산시키기 위한 후속 과정을 합의했다. 지난달에는 두 가지 지역 심포지엄이 조직되었으며, 특히 중국에서는 특별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시민사회, FAO, 정부와 학자들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9월), 유럽 및 중앙아시아(11월)에 만나게 될 예정이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에서는 참가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도 개방된 과제를 놓고 지역 의제가 합의되었다. 이는 다음과 같다. 영세 어업의 중요성과 농생태학적 농업의 기여를 부각 시킬 것; 사회적 참여와 함께 영토로부터, 그리고 영토에 농생태학을 확산시키기 위해 정책과 법적 틀을 만들고 실행할 것; 과학적인 지식을 다양한 부분의 전통적 토착 지식 및 실천과 통합시켜서 실증에 기반한 농생태학 지식을 관리하고 후속 세대에게 확장할 것; 농생태학적 생산과 판매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을 확산할 것; 종자, 물, 토지, 영토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보장할 것; 생명과 인권을 중시하고 존중함으로써 농생태학 촉진하며, 국제 소농 선언문에 주목할 것; 국제 농생태학의 해 기념을 제안할 것.

유럽과 중앙아시아 회의에서 시민사회 조직들은, 농생태학에 접근할 때 기술적 의미를 넘어서서, 사회·문화·정치·경제적 측면을 아울러 통합적으로 이해하자고 제안했으며, 참가자들은 이에 합의했다. 또 다른 중요한 논의로는, 정부가 농생태학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IPC는 이러한 심포지엄을 농민들에게 있어 좋은 기회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으로도 심포지엄을 통해 더 많은 기회가 형성될 것이며, 농생태학에 몸담고 있는 다양한 이들을 보다 끈끈하게 결속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